

‘국민과 함께 농업의 新가치 창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한마을 다짐대회’ 열어 사람 등 핵심가치 제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두호)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과제를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마음을 모으는 ‘한마을 다짐대회’를 분원 다채움홀에서 18일 개최했다.

이번 다짐 대회에서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새로운 비전인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달성을 위해 ‘사람·환경중심, 창의·융·복합, 소통·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목표로는 ▲농업 원천기반 기술 고도화 ▲농산업 현장 융·복합 기술 선도 ▲국가정책 공공기술 강화를 선정했다.

이를 구체화 할 7개 전략 과제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업기반 기술 ▲안전 먹거리 생산 종합관리 기술 ▲지속가능 농업·스마트 농촌 개발 기술 ▲첨단 ICT 융·복합 디지털 농업기술 ▲농생명 고부가 바이오 신소재 기술 ▲맞춤형 건강 기능성 푸드텍 기술 ▲국가정책지원 공공임무 평가 관리기술을 선정하고, 추진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두호)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과제를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마음을 모으는 ‘한마을 다짐대회’를 분원 다채움홀에서 18일 개최했다. 이날 김두호 원장은 ‘사람·환경중심, 창의·융·복합, 소통·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의 총괄 연구 기관으로서 농업과학 연구에 매진해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 식량 생산,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선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김병석 과장은 “기후변화, 디지털 뉴딜, 인구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며 농업·농촌연구 중심 기관, 나아가 세계일류 농업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농생명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종합건설사 수주실적 ↑

총 금액 전년보다 7.7% 증가한 3조4675억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수주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종합건설 회사 48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지를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까지 신고를 받은 결과 474개사가 신고했으며, 총 실적금액은 전년 대비 7.7%(2491억원) 증가한 3조4,67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실적신고 금액이 상승한 요인은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의 전략적으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년 대비 신고업체수가 474개사로 작년 대비 17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종합건설업의 순위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은 전년 65.9%에서 62.7%로 감소했으며, 미실적사와 미신고사가 13개업체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주)계성건설로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는 (주)제일건설이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타 지역 민간 공사 수주로 (주)신일 3위, (주)신성건설 4위, (주)대창건설 5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내로 삼흥종합건설(주)(15위), (주)삼부종합건설(27위), (주)세정토건(33위), 인성종합건설(주)(34위), 삼안종합건설(주)(39위), 해전건설(주)(41위), 삼신종합건설(주)(42위), (주)흥성(43위), 호원건설(주)(46위) 등이 진입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며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물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타지역의 민간 건설시장의 진출 등의 지구책 마련 결과로 7.7% 증가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과도기적인 입학 환경이 펼쳐져 녹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발주관서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건설사의 육성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작년 도내 전문건설업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7일 완료한 ‘2020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에 도내 2,655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해 기성실적신고 총액 2조4,410억원으로 접수 마감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기성실적신고액 2조 5,812억 대비 5.4% 감소한 금액으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경기 불황과 이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내 실적 상위업체들의 타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 감소와 도내 업체가 수주를 위해 타 지역에서의 진출 등이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 평가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9천 383억 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38%를, 하도급공사는 1조5,025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대 별로는 무실적 업체가 136개, 1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1993개, 3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72개, 5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83개, 100억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44개였다. 1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줄어든 24개 업체로 집계됐지만, 이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1%(4,656억 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 증감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서 “올해는 정부의 사회 SOC예산 확대 및 민간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활기를 되찾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2021년에는 지역전문건설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609억원을 신고한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가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했으며, 초석건설산업(주)(대표 박성진)이 450억원으로 2위를,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3위(395억원), (유)원진건설(대표 원경의)이 298억원으로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5위(280억원)를 차지했다. /김윤상 기자

작은 것이 더 맛있네?... 사과 소형품종 ‘주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소규모 가구가 늘면서 한 번에 먹기 좋은 소형 위주의 과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크기는 작아도 뛰어난 맛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산 사과 품종을 18일 소개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먹을 사과를 구매할 때, 크기가 큰 대과(大果)보다 비교적 작거나 중간 크기의 중소과(中小果)를 선택하며 소포장 단위를 선호한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작은 사과 가운데 최근 보급량이 늘면서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품종으로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개발한 ‘루비에스’는 당도 13.9브릭스, 산도 0.49%, 무게 65~75g으로 탁구공보다 조금 큰 사과이다.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일본 품종보다 과육 부분이 더 많고 새콤달콤하며 저장성이 우수하다. 또한 수확시기도 30일가량 빨라 경쟁 품

종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개발한 ‘피크닉’은 당도 14.5브릭스, 산도 0.33%, 무게 220g으로 테니스공과 비슷한 크기다. 사과 껍질이 빨간색을 띠며, 새콤달콤한 맛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개발한 ‘황옥’은 당도 16.5브릭스, 산도 0.58%이며, 무게는 220g으로 ‘피크닉’과 크기가 비슷하다. 연두빛이 섞인 노란색 사과로 껍질 색이 특이하고, 새콤한 맛이 진해 젊은 층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옥’은 당도와 산도가 높아 생과로는 물론 주스·제과용으로 활용범위가 넓은 편이다.

작은 사과 품종 ‘루비에스’, ‘피크닉’, ‘황옥’은 사과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쉽게 묘목을 구매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이동혁 사과연구소장은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가까운 센터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품질이 검증된 사과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소형 사과 ‘루비에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NH직장인대출V 출시 기념 SNS 이벤트... 내달 7일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NH직장인대출V’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 7일까지 V 댓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NH직장인대출V’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지정기업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재직자 중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본인명의 휴대폰, 농협은행 입출시계좌만 있으면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24시간 365일 언제든 간편하게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도 여유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상품 가입과 별개로 농협은행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에 등재된 이벤트 게시물에 알파벳 V가 들어간 영어 단어를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가능하고, 총 20명을 추첨해 카카오프렌즈 조명 무선충전패드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팀버랜드 최초 투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글로벌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산림지(팀버랜드·Timberland)에 최초 투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투자 다변화 전략 아래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림 분야에 스태포드 캐피탈의 펀드를 통해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팀버랜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지의 취득, 목재 재배 및 벌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추구하며, 산림 추가 조성과 친환경 자재인 목재 공급 증가 등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투자하게 되는 펀드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산림 국가들에 투자를 진행하는 스태포드 캐피탈의 아홉번째 팀버랜드 전문 펀드(Stafford International Timberland IX)이다.

스태포드 캐피탈은 2000년에 설립된 팀버랜드 분야 전문 운용사로 런던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총 8개 사무소에 약 7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팀버랜드 분야 운용 규모는 약 27억 달러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올해 신규보증 지원 2552억원... 농어촌 경제 균형 발전 기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보증지원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올해 약 2,552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작년보다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청년 농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어업인 육성을 통해 농어업 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전국 지역별로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9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기로 의지를 한데 모았다.

27개 보증센터가 있으며 전북에는 전주, 정읍, 남원지역에 3개의 보증센터가 있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9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실시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기로 의지를 한데 모았고,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보증지원으로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농신보 정읍센터가 일조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1월 신규 부임한 이성로 센터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어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작년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 성과 ‘톡톡’

24개사 수출액 4028만불 달성

전라북도회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해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24개사가 4,028만불(약 483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내 제조·유통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수출기반조성, 수출 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진원은 기존 직접마케팅으로 진행됐던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반조성 한도 폐지, 당해연도 수행분 소급적용 범위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기반조성 부분으로 제한 내용을 완화했다. 사업참여 기업이 시·도별에 적용하고, 코로나19 상황해제 시 곧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받 빠르게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24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4,028만불(약 483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수출주도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클라베인터내셔널(대표 김병원)

은 “해외 바이어 전용 영문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단순 방문지와 주거래 바이어 페이지를 구분하고, 발주신청·상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비대면마케팅으로 회사와 제품 홍보를 진행해 전년 대비 2배의 매출 증대(140억 원) 효과를 누렸다”며 “앞으로도 신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형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출초보기업은 필수로 기업진단분석 및 컨설팅을 이행해야 한다. 경험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위해 담당자와 관세사가 팀을 이뤄 해당 기업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수출초보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착한음식(대표 김수석)은 사업성과가 확대돼 첫 수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착한음식은 “미국 수출에 적합한 상자 디자인과 박람회 전시회에 사용할 홍보 동영상 제작했다”며 “지난해 12월 미국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4만불(약 4,800만 원)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4만불(약 2억8,000만 원)의 수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